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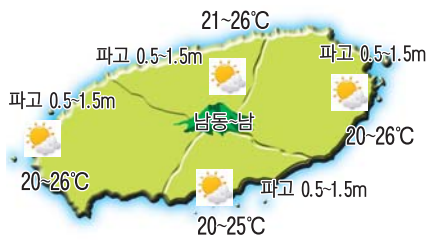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24일 목요일 음 5월 15일 (7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오후 들어 곳에 따라 흐려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기온은 20-21°C, 낮 최고 기온은 25-26°C로 전망된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대 1.5m로 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30%
20%	성산	30%
10%	고산	20%
10%	서귀포	30%

해돋이 05:25	달뜨기 19:29
해지기 19:48	달지기 04:29
몰때 09:43	간조 04:35
	22:58
	16:24

식중독지수 ▲ 자외선지수 ▲
주의 높음

미세먼지 (PM10)	중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중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주간예보 <문의: 064-725-1313>

내일	구름 많음	20/27°C
모레	구름 많음	21/27°C

월드뉴스

매일 6시간 걸어 출퇴근한 청년이 받은 선물

기부금 약 5300만원 모여

매일 27km를 힘들게 걸어 출퇴근하던 미국 스무살 청년의 사연이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며 온정이 답지해 주위를 훈훈하게 한다.



돈테 프랭클린(왼쪽)과 마이클 린.

23일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돈테 프랭클린(20)은 지난주 자신이 요리사로 일하는 식당에 출근하기 위해 걸어가다 마이클 린이라는 남성의 차량을 얻어타며 뜻밖의 인연을 맺게 됐다.

니를 생각하며 힘을 냈다면서 "힘들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가족을 위해 계속 걸었다"고 말했다.

린은 조수석에 탄 프랭클린과 대화를 나누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랭클린은 이동 수단이 없어 그간 집으로부터 13km 넘게 떨어진 식당으로 걸어서 출근했던 것이다. 양복으로 따지면 27km에 달하는 거리다. 매일 먼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지각한 적도 없다고 한다.

감동한 린은 페이스북에 이 사연을 올렸고, 프랭클린의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모금 운동이 벌어졌다.

프랭클린은 고된 여정에도 4년 전 C형 간염을 앓다 세상을 떠난 어머

미국 모금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지난 6일간 1300여명이 모금에 참여해 4만6650달러(약 5300만원)가 모였고, 한 자선단체는 프랭클린에게 최신형 자전거를 선물하기로 했다.

프랭클린은 고된 여정에도 4년 전 C형 간염을 앓다 세상을 떠난 어머

“가족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정말 축복이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편집인 이용곤 편집국장 조상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서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목요일론



김안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원

환경면 웅수리 습지에 여러 해오라기들이 나타났다. 대개 백로류는 낮에 활동하고, 해오라기는 이른 아침과 저녁에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 찾아온 검은해오라기, 검은맹기해오라기, 담불해오라기는 대낮에도 홀로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다. 갈대와 같은 수초가 있는 습지에서 있다 보니, 워낙 위장술이 뛰어나서 움직임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 남쪽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기력을 보충하려는지 한낮에도 버둥치 잡이에 나서고 있었다. 그렇게 밤낮으로 조심스럽게 먹이사냥에 집중해야 다시 먼 곳으로 떠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습지 인근 곰솔 꼭대기에 앉은 두견이도 한참 울고 있다. 두견이는 빠꾸기처럼 자기 등지를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등지에 알을 낳는 습성이 있다. 제주에 찾아오는 두견이는 섬취파람새의 등지를 택한다. 이 새는 한 등지에 한 개의 알을 맡기기 때문에, 여러 개의 섬취파람새 등지를 찾아야 한다. 자기 위치가 천적에게 노출되더라도, 두견이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습지와 꽃자왈을 오가며 애타게 울어야 안심된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정신이 없으며, 먹잇감을 두고 평소 친한 흰배지빠귀와 다투기도 한다.

새벽녘에 선를 꽃자왈을 찾았다. 호랑지빠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지빠귀들과 달리 이 새는 이른 아침과 초저녁에 울며, 늦은 밤까지 울기도 한다. 습하고 숲이 우거진 곳에 사는 습성이 강해서, 작은 인기척에도 놀라 도망가 버린다. 간혹 탐방로로 나와서 낙엽층을 뒤져 지렁이를 찾다가, 서로 눈을 마주 볼 때가 더러 있다. 새로운 짝을 찾거나 갓 태어난

새끼들을 먹여 살리느라 밤낮으로 정신이 없으며, 먹잇감을 두고 평소 친한 흰배지빠귀와 다투기도 한다.

‘복숭엔 밤에 먹어서 퉁다’라는 제주 속담이 있다. 수박이나 참외는 잘 익을수록 맛이 달콤하다. 복숭아도 그렇다. 먹을 것이 귀한 시절, 썩은 부위만 도려내서 먹어도 맛이 없었다. 다른 과일에 비해 복숭아는 껍질이 얇아서 곤충이 파고 들어간 흔적이 쉽게 눈에 띈다. 애벌레가 들어 있을 때도 있다. 지금 같으면 냅다 클린하우스로 보내기 일쑤다. 버리는 게 아깝고 먹자니 내키지 않다. 흠결이 잘 안 보이는 밤에 먹게 했다. 상처 난 부위나 벌레 먹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니, 멧모르고 먹을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제 밤에도 잘 보이는 세상으로 변했으니, 오히려 밤이 위험하다.

도내 해수욕장 주변과 공터마다 차박족과 텐트족이 북새통이며, 밤에도 활한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위축된

사람들이 심리적 불안 증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공여지책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힐링 지역으로 각인받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심신 치유 여행지로 제주도가 당연 후보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의 준수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더구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됐지만, 제주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안 증세가 높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한 여름의 야간 명소인 탐동광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할까.

수많은 여행객들이 낮에는 여러 곳으로 분산됐다가 밤에는 숙박지를 중심으로 대면 접촉이 줄고 있다. 분산과 집중이 되려 여행객과 도민 그리고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여름휴가를 맞아 제주도가 그야말로 온종일 전장터로 변할 판이다. 누가 적인지 야근인지 알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밤낮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무탈하다.

열린마당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행정기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중에서 부동산 거래 등 매매 용도로 발급받는 인감증명서는 더욱 중요한 민원서류라고 본다.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운영된 지 100년이 넘어가고 있으나 인감도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정부에서는 2012년 12월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으나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 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할 필요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또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용 외에 일반용으로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자동차 근저당권설정(○○캐피탈)', '○○생명 보험금 청구용' 등과 같이 필요한 목적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위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임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도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거래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는데 처음 한번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발급기관 방문없이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전자문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2020년 인감대비 전국 5.48%, 제주도 18.64%로 저조하다. 앞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 받으시길 바란다.

비상구 폐쇄행위 아직도 보고만 계신가요?



김형석 동부소방서 현장 대응과

사람들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보다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나 헬렌 더 많다. 안타깝게도 비상구 근처에서 사망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비상구가 막혀 빠져나오지 못한 까닭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재빨리 대피해야 한다. 그러나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비상구 앞이 물건이 쌓여있다면 어떻게 될까? 허겁지겁 물러든 사람들이 비상구 앞에서 우왕좌왕하다 연기에 질식사하는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이 바로 소방서에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는 이유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

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적정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 시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업소,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카페, 스낵바포 포함) 등이다.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에는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방화문 폐쇄·훼손·잠금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 설치 및 폐쇄·훼손 ▷수신반 전원·동력(감시) 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 전원 차단 및 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등이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사진·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우리 스스로가 비상구 폐쇄행위를 보면 바로 신고해 위기 상황을 예방한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확신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랜드보청기

그랜드보청기 확장이전 파격할인!!
구매고객 20만원당 녹음 선착순 증정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LG전자가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청능사」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청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리일보 서서로 사거리 삼거리 1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로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보청기), 한라체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임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